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아티스트 토크  
이정형 <파인 워크\_Fine Works>

일시 : 2015년 5월 16일 (토) 오후 4:00 - 5:3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기록 : 윌링앤딜링

이정형 : 전시 제목 '파인워크'라는 단어는 '파인 아트 워크'의 합성어이자 '아트'를 빼고 노동과 예술을 동시에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다중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들어낸 합성어예요. 이런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서른 이전까지 작가가 되고 싶어서 작가의 어시스턴트 일을 삼년 정도 했었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기성 작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만드는지 작가의 어시스턴트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작업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작가의 작업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가의 작업을 만들어주거나 대신 설치를 해주는 등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병행해왔습니다. 그 일들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농담 삼아 같이 일하던 친구들끼리 설치를 대신 해주는 회사를 한 번 만들어 볼까라고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일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작업을 할 시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막상 제가 작업은 하고 싶지만 일은 계속해서 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일들은 떳떳하게 제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대신 만들어 줬고, 이번에 무슨 설치를 대신 해줬고, 딱 내세울 수 있을만한 크레딧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작업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서 만족시켜 줄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지요.

나는 언제 작가를 하나, 나는 언제 작업을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존의 제 작업들과 함께 일하던 중에 찍었던 사진들을 프리젠테이션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일터에서 현장 장면이 작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이렇게 찍는 사진들이 어떻게 하면 작업으로 발전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술의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에 와서 '겹쳐지는 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지점과 예술을 하는 지점, 이 두 가지 영역이 동시에 겹쳐져서 나타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실에서 실리콘 테스트를 하려고 실리콘을 교반 작업을 하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넘쳐버렸을 때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리콘이 꽤 값이 나가는 재료이다 보니까 사건 자체로만 보면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음으로써 미적 결과물을 배합하는 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미있는 상황을 찍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광주는 서울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차가 오면 바로 실어서 가져가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저런 캔을 하나 주더라고요. 오전

에 적재를 해주면 저녁 다섯 시쯤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요. 하지만 저는 젊은 작가들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룰을 몰랐던 거예요. 쓰레기를 채울 수 있는 기준선이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많이 넣으면 다 가져 갈 줄 알고, 일부러 쓰레기통에다 폐기물로 벽을 만들어 과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사 아저씨에게 혼이 나고, 이렇게 많이 쌓으면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배로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사진의 인물들은 일을 하면서 미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막상 이 일이 주업은 아닌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이 흥미롭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이 장면은 일을 하다가 휴식하는 장면이고요.

합판을 나르기 위해서, 복도가 건물의 외벽을 통해서 나있어서 해당 복도로 나르면 귀찮으니, 우리가 일층에서 이층으로 합판을 던지다시피 해서 쉽게 쉽게 일을 진행했던 장면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시장을 만들거나 전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전시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갤러리가 깨끗해지고 저희가 철수하기 전에 전시장에 쓰였던 부수 자재들이나 공사 용품들이 갤러리 안에 잠깐 남겨진 동안 일종의 플래시보 효과처럼 이런 물품들이 마치 작품처럼 또는 설치작업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됐어요. 이는 마치 공사 하나를 할 때마다 제가 전시를 하나 끝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갔던 것은 전시를 할 때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변화시키는 도구들이나 기계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기계에 속하는 부속품이나 장치들에서 보이는 조형성을 찍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게 일이자 단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놀이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분석해 보면 보통 현장에 가면 매우 바쁘고, 긴장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책임자로서의 시각과 작가의 시각이 교차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동자로서만 일을 할 때는 공간 조성의 결과에만 집착을 했다면 사진을 찍는 행위라는게 저한테 어떤 작가적 시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관찰자적 시점으로의 변화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과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의 구조가 저한테 있어서는 행복한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작업을 위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에서 했던 일들이 클라이언트가 있거나 타인을 위한 결과를 내는 일들이었다면, 중간 과정을 찍음으로서 그 중간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 기록은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 기록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남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저의 성향을 반영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했던 일이 화이트 큐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술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예술 관련 일이고 이 공간이 공사장과 전시장이라는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공간의 부조화가 만들어 내는 지점이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했던 전시 플래시보 효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B컷 필름이나 영화에서 메이킹 필름 같은 이미지, 저희가 모르는 화이트 큐브를 만들기 위한 이면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는게 즐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 번 할 때 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더라고요.

'아마도'에서 <목하진행중>이라는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프로세스아트를 보여주는, 계속해서 진행하며 작품이 진화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류하고 나열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고 이번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관심가는게 이 일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깐 <사람들>과 연관된 사진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단체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활동이나 행동들이나 이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흥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Left over>예요. 미술 행사나 미술 공간을 만드는 일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을 해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먼지나 쓰레기나 기타 여러 가지 남는 것들이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설치의 재발견>인데, 결과가 아닌 중간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 흥미롭거나 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되는 어떠한 장면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심있게 찍은 것들이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위한 단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했던 작업은 이 작업은 <레프트 오버>라는 작업이고요. 대구 청년미술제에서 했던 작업이고요. 대구 청년미술제가 대구의 코엑스 같은 곳에서 열렸는데, 이전 전시에서 나왔던 쓰레기들을 제가 다음 전시에서 설치했던 작업이에요. 전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장치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그 쓰레기를 다시 전시 공간으로 가져오면서 예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 전 전시에서 나왔던 쓰레기들을 전시를 했고요. 제가 보통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아이폰 크기 사이즈로 사람들에게 보여 지기를 원했어요. 저기에도 사진을 작게 뽑았는데, 사실 해상도 문제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에서 전시했던 작업이고요. 아마도에서는 전시 주제가 "공사력"이었어요. 예술과 삶의 경계 지점을 제가 가진 공사력으로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 톱 받침대를 어떤 클라이언트가 하늘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예술 작업으로 보이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어요. '왜 이게 떠있으면 더 예술처럼 보이지'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행으로 세웠던 톱을 수직으로도 세워보고요. 또 하다가 남은 파일 박스나 다른 걸로 조형적으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구나 수도관이나 배수구나 어떤 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구멍들이 결국에는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다 만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사실에 (사진에 잘 안보이는데) 실로 저것은 공간특정적 작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쓰인 메인 이미지 제목도 <we>인데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젊은 작가고 그 친구들은 저와 다르게 일을 같이 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나는 등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 이미지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사진으로서 전시했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공사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벽지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방에다가 이것을 벽지로 만들어서 도배공사를 했던 작업이에요. 이것은 <레쓰비>라는 작업인데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먹는 커피가 레쓰비인데 아저씨들이 자주 파란색 커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파란색 커피를 가지고 여러가지고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도'에서 전시를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공통적인 피드백은 작업이 사진을 보면 스토리가 보이는데, 사진이 아닌 작업으로 봤을 때 스토리의 전달성이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작가가 설명하지 않아도 작업으로서 의미가 보이거나 전달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에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작업인 <we>고요. <we>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공장미술제가 끝나고 파티션들을 다 철거한 이후에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시는 액자를 만들어서 배치하였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나 경험들에 비추어서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작업을 다시 만들거든요. 여기 붙어있는 겹쳐있는 지점도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의 전시 작품들의 단서예요. 메인 작업인 <MDF 48-15T>의 경우, 목공사를 하면 MDF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것을 보고 볼프강 라이프의 작업이 생각이 났어요.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애틀에서 볼프강 라이프의 헤이즐릿 가루로 만든 작업을 본 적이 있었고, 그 장면이 기억 속에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백인 작가가 헤이즐릿 가루로 동양적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술의 숭고함을 향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동시에 물성적으로 강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MDF 가루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작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MDF 가루는 독성이 있는 쓰레기이고 그렇게 몸에 좋은 물체는 아닌데 이것을 합판 사이즈로 다시 재현을 했어요. 채를 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있는 노동을 통한 약간의 숭고미를 고집어내고 싶었던 방법이기도 한데, 볼프강 라이프 패러디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스펀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다들 건드려보고, 발로도 차보고, 어차피 제가 다시 멀쩡하게 만들어도 또 와서 찰 거 같아서 그냥 뒀어요.

<바퀴가 달린 가벽>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되게 많이 써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 작업은 이 사진에서 왔는데요. 제가 아마 12m정도 되는 가벽을 통째로 옮겨야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뜯고 하면 꽤 많은 돈의 액수가 다시 복구를 하는데 들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를 쓴 게 저 가벽에 바퀴를 달아서 통째로 옮기면 좀 더 효과적이고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벽에다 바퀴를 달고 통째로 눕힌 다음에 끌어서 세웠거든요. 사람이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만드는 도구나 방식들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 이것도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행사를 할 때 8미터 되는 높이인데 그만한 높이의 사다리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대들보에 조명을 설치할 해야 하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어서 무식하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한데, 사다리 세 개를 이어가지고 하나의 큰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크레딧이 예술 작업을 담는 껍데기잖아요. 결국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천장이 더 높았으면 사다리를 더 길게 하고, 약간 더 아슬아슬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이 작업은 <페인터>고요. 이 사진은 구로공단에서의 전시장면입니다. 이게 이번에 했던 작업이에요. 도색 작업을 할 때 페인트칠을 하는 아저씨들이 작업을 위한 스테이션을 만들어요. 이게 화가들이 쓰는 파레트처럼 보이더라고요. 화가들이 파레트에서 붓으로 물감을 찍어 바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재미있는게 영어로 화가와 페인트를 칠하는 도공을 똑같이 페인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 작업이름도 <페인터>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가벽인데 예술의 전당이 대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전시를 할 때마다 새로운 벽에다 새로운 페인트를 입히고 그걸 또 갈아내고 또다시 새로운 페인트를 입히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페인트가 발려졌던 벽을 갈아낼 일이 있었는데, 갈아낸 벽이 굉장히 회화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은 갈아낸 면들을 찍었던 장면인데, 이렇게 갈려진 단면들이 보이면서 그 안에 층층이 쌓여진 레이어가 보이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렇게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는 저 상태도 재미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흔히 쓰이는 목장갑을 길게 만들어서 <위대한 손가락>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다들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목장갑이 많이 쓰이고 항상 쉽게 사서 쉽게 버려지고 70원 밖에 안하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도구 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 처음에는 가벽도 많고 벽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깐 벽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 때 생각했던 작업이 <벽돌 위에 벽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벽에 매달린 사람>인데, 실제로 저 친구가 벽에 매달려서 중심을 잃고 벽에 매달리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것을 그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신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게 막연하게 저에게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신전은 자기가 살아온 문화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나의 예술의 신한테 무엇을 바쳐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업실에 있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보려 했어요. 모아서 보니깐 청계천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청계천에 가면 여러 가지 점포의 모양으로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디피하고 그것들을 팔아요. 그러한 방식이 제가 만든 신전의 어떤 부분에서 보였죠. 그래서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실제로 오랜 기간 청계천에 다녀보니깐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계천에서 구했던 물건들이고, 구할 수 있는 물건이이예요. 그러한 물건들로 일도 잘 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형태죠. 보이는 코끼리 상은 인도의 가네샤라는 재물신이예요. 그 옆에 장난삼아 동전도 올려 놓아봤죠. 이 영상 작업은 제가 타이틀을 <돌고 돌고>라고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시중입니다'로 바꿔야 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에 보이는 것은 예술의 전당에 있는 화물전용 엘리베이터예요. 전시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는 보통의 엘리베이터보다 10배 정도 큰 크기로 화물이나 예술작품 등을 옮기는 엘리베이터죠. 전시 준비 중에 많은 횃수를 타다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루핑시켜서 계속해서 돌고 돌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항상 겹쳐지고, 그로 인해 저는 두 가지 영역을 잘 조절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조절을 못해서 힘들었는데, 조절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한 것이 사진이란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일도 계속 해야만 생성될 수 있는 작업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느끼는 점이 생겨야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즐겁게 일하며 살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이번에 개인전을 하고 보니, 이 작업을 보여주는 방식도 순수 예술이라는 영역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작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순수한 예술이라는 것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작가들한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 : 처음에 파인이랑 아트랑 워크랑 이 세 개가 어떤 틀이라고 하셨는데, 아트랑 워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작가에게 있어서 파인이란 단어, 순수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어떻게 정당화 되는가요.

이정형 : 순수라는 단어는 절 괴롭혔던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작업에 대한 해결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작가의 상이 순수할 때만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어에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시절도 있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꼭 모든 작가를 그 틀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답변이 되었나요?

관객 : 그 순수라는 틀을 본인의 개인적으로 정립한 것이 있는 건지, 파인이라는 단어를 정립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 틀이라는 의미의 그 틀이 사용하는 순수는 내가 사용하는 순수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정형 :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다른 모티브들을, 일을 하면서 가져오는 스펀지들이나 생성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술로 다시 가져왔을 때 그 것들이 예술이라는 영역에 들어오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가격이 매겨져서 판매될 수도 있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순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설명하기 보다는 제가 보여주는 작업 방식이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인선 : 저번에 저랑 대화할 때 작가가 행하는 예술하고 노동이 비율로 따지면 50 대 5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작가들과 작업도 많이 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가들이 생계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 가지 입장에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같은 또래의 작가들 중에 여느 작가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드는 생각이랄까, 느낌이 궁금해요.

이정형 : 사실은 케이스바이케이스 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되게 우연하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또 어떤 작가들은 일하고 작업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분리를 시켜놓는 케이스로 생각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작가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제 모습이 동시대 작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건데 운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선 :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폐허가 된 곳이나 여러 가지 전통적 미술계에서 쓰지 않았던 그런 재료들이 재료가 되고 작품이 되는 경향이 쪽 있어왔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본인의 작업하고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정형 : 방식의 있어서의 차이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비슷하다면 다 비슷하고 아니면 다 다르기도 하고 그 방식에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은 제가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같이 이끌어서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

력으로 만든다는 점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선 다른 부분이 있고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관객 : 결과가 어떻든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작업 과정 자체를 형상화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네요.

이정형 : 사실은 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시를 하거나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업을 만들어 줬다고 해도 그게 저한테 사실 도움이 되거나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또 작가들은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세다 보니깐 중간에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을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 : 누군가의 뒤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주장하고 싶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숨어있는 메시지나 뚜렷한 주장 없이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정형 : 감사합니다.

김인선 : 작업들이 날것들을 쓰고 있지만 완결성을 보여주잖아요. 읽히기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관객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쉽게 보여질 수 있는 면들이 어떤식으로 보면 장점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상업예술 쪽에서도 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물어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정형 : 작업의 판매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모호해지겠죠?

김인선 : 혹시 지금이라도 어떤 상업화랑에서 접근을 하면 응할 생각이 있어요?

이정형 :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작업 중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다고 가정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갤러리면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웃음)

관객 :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일할 필요성도 없어질까요?

이정형 :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작업이 잘 팔린다고 하는 것도 지금 질문하신 저보다 더 유명하고 상품성도 좋은 작가께서도 작품이 팔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저는 더 기다려봐야 겠지요. 당분간 일은 계속 하지 않을까요?

관객 : 혹시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정형 : 일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는데 일을 안 하려면 이라는 전제가 붙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언제쯤 일을 안 해도 되는지 정도의 생각할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관객 : 과거에 작가를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작가가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서른 살이 되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 전시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때 봤던 아티스트와 같은 아티스트잖아요. 그 아티스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3자로서 도와주던 아티스트의 다른 면을 봤을텐데, 일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또 다른 이정형이라는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작가의 모습과 내가 봤던 작가의 모습이 다른지 같은지.

이정형 :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관객 : 지금 이 작업을 봤을 때, 제 첫 느낌은 너무 뭉다는 느낌이었던거거든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너무 조용하고 암전하고 그렇게 극단으로 가지도 않고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던거거든요. 본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 지금 작업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자신은 작가가 되어야 하는데 작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작가로 왔는데, 그랬을 때 정말 작가가 자기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스스로 조심스럽게 작가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는지 아니면 아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지.

이정형 : 어제도 술자리에서 제가 작가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일할 때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마음속에서 51프로만 작가라고 믿을 수 있으면 작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지금도 예전부터 사실 제가 작가가 아닌 일로 일을 하거나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도 되게 신기하게도 작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도 많고, 이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들도 사실은 제가 가서 사장님이나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다 작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연결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내적 정당화가 안 되다보니까 어디 가서 작가님 소리를 들으면서도 심정적으로는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종교가 없는 대신에 예술이 어떤 종교의 역할을 한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 흔들린 적은 없어요. 어떤 작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수렴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것 같아요.

관객 : 작품을 보면 어시스턴트를 하는 과정 중에 느꼈던 것들을 예술로 승격시켰다는 자체가 본인이 작가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정형 : 보통은 작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하나가 다음 전시를 뭐할지에 대해 힘들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 좋은 부분이 뭔가를 할 때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작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김인선 : 많은 양의 데이터나 작업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장에 약간은 험한 느낌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 작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

거든요. 연출 같은 부분에도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정형 : 사실 더 많았으면 왜 이렇게 많냐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강약조절이 있어야 되고 동선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한 트럭 실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간 것들이 많잖아요.

관객 : 어시스트 하면서 작가들을 통해 작가로서의 숙명이나 고통 같은 것을 보셨을 텐데, 작업이 탄생하는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느낀점도 작업에 물어나네요.

이정형 : 제가 어시스턴트를 했던 작업 선생님, 일을 하면서 도와드린 작가들이 몇 분 오셨는데, 작가들이 자기 작업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대하는 태도는 배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방식을 배우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옆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는 있는데 어렵풋하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작업에 물어나오지 않을 까요. 딱히 어떻게 했다고는요.

관객 : 도록에 있는 이진명 큐레이터가 글 쓴 글을 보면 이정형 작가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던져준 것 같은 송고한 컨셉으로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정형 작가는 캐주얼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삶을 지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맥락 속에 자신을 넣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과 자기를 둘러싼 사람하고 지내고 싶은 그 정도 영역 안에서 이 큐레이터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소명의식을 확장시킨 것 같은데 글을 받고 나서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바뀐다면지, 글을 어떻게 받아드렸는지.

이정형 : 운이 좋아서 사회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진 작업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차피 해왔던 일은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명의식이나 대의나 그런 것 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객 : 이정형 작가가 오늘 작업하고 노동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막걸리 집을 운영하는데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단순히 예쁜 것 몇 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까는 것이나 배관이나 에어컨 설치 같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했어요. 제가 원래 미술 쪽에 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감이 없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위트를 담는다면지 21세기 막걸리 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재미있어 해요. 이정형 작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매출도 오르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자영업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고나면 다들 떠나가요. 작업으로 유지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정형 작가와 저는 이작가가 성심성의껏 노동으로서의 일을 했고, '난 작가니까 이것 까지만 할게요.'가 아니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작가가 얘기하는 작업과 예술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